

제주도에 주둔했던 일본군 해안특공대

조성윤(제주대 교수)

1. 머리말

제주도에는 일제말기 일본군들이 미군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조성해 놓은 엄청난 규모의 군사시설이 남아 있다. 그 형태도 비행장, 격납고, 토치카, 각종 지하 터널 등 매우 다양하다. 그 중 많은 부분은 이미 파괴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상당한 부분이 남아서 우리에게 당시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일본군이 남기고 떠난 전쟁의 흔적은 우리의 관심 밖에 있었고, 망각의 대상이었다.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강제로 노동현장에 끌려가 일하다가 다치고 죽기도 했으며, 고통에 시달렸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현상이었다.

최근에 그중 일부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2002년 5월 31일에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비행기격납고가, 2006년 12월 4일에는 알뜨르 비행장 지하병커를 비롯한 12군데의 일본군 전쟁유적이 근대문화유산이 되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주도에 일본군들이 남겨 놓은 전쟁시설이 언론의 조명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처럼 한꺼번에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미로처럼 얽힌 지하 갱도가 있는 제주도 한경면의 가마오름 유적지에 2004년 평화박물관이 개관하여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왜 누가 일본군들이 남긴 군사시설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했을까? 그리고 평화박물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는 2005년부터 일본군들이 제주도에 남겨 놓은 군사시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현재는 그 1차 작업 결과가 3권의 책으로 간행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제주역사문화진흥원을 중심으로 중요 지역에 대한 정밀측량이 실시되어 그 보고서가 간행되었다.

조성윤·지영임·허호준, 2007, 『빼앗긴 시대 빼앗긴 시절-제주도 민중들의 이야기』, 선인.

조성윤 편, 2008, 『일제하 제주도 주둔 일본군 군사유적지 현장조사 보고서 I』, 보고서.

조성윤 편, 2008, 『일제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보고서.

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08, 『일제 동굴진지 등록문화재 종합 학술조사 보고서[I]』

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09, 『일제 동굴진지 등록문화재 종합 학술조사 보고서[II]』

제주도의 일본군 전쟁 유적지를 조사한 목적은 이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가 일으킨 전쟁의 실상을 파악하고, 평화 교육의 자료로 삼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조사연구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연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군이 남겨 놓은 전쟁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다.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려면 몇 년이 더 걸려야 할 지 아직 알지 못한다. 한편 이 유적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평화 교육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안 역시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일제말기 일본군이 제주도에 남겨 놓은 전적지와 관련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발표에서는 조사 연구의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다. 조사 내용은 성산일출봉에 조성되었던 일본 해군의 해안특공기지과 이곳에 주둔했던 군대의 사병들에 관한 이야

기이다.

2. 일본군 해안특공기지의 실태

제주도에는 현재 일본 해군 특공정을 숨겨두기 위해 파놓았던 굴들을 중심으로 한 기지가 5군데 남아 있다.

- 1) 城山邑 日出峰 海岸
- 2) 翰京面 水月峰 海岸
- 3) 西歸浦 三昧峰 海岸
- 4) 朝天邑 犀牛峰 海岸
- 5) 大靜邑 松岳山 海岸

각 특공정을 숨겨두기 위한 굴의 현재 보존 상태를 조사하였다.

우선 각각의 특공정을 비밀리에 숨기기 위한 은닉호의 현재의 보존 상태를 본다면, 5곳 모두 15~20개소의 굴이 해안에 남아 있는데, 굴의 내부는 70~80% 정도가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다만 내부는 그대로 있어도 입구가 함몰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은닉호를 만들던 당시에는 굴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시멘트로 만든 유도로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모두 파도에 휩쓸리면서 부서지고, 이제는 그 흔적만이 남아 있다.

城山邑 日出峰 海岸、翰京面 水月峰 海岸、西歸浦 三昧峰 海岸 3개소는 震洋特攻艇秘匿壕임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이 3개소에는 진양부대가 주둔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朝天邑 犀牛峰 海岸은 구조의 특징을 보면 震洋特攻艇秘匿壕라고 판단되지만, 실제로 군대가 주둔한 적은 없었다.(8월까지 미완성 상태에 있었다.)

마지막으로 大靜邑 松岳山 海岸 秘匿壕는 위의 4개 지역과는 달리, 8월 전쟁이 끝난 시점까지 약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었던 미완성 상태였다. 그러나 갯도의 길이가 훨씬 길어 10m 이상인 것들이 많아 震洋이 아닌 카이텐(回天)을 숨기는 용도로 조성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하지 않다.

5개 장소 중에서 일반인의 눈에 가장 잘 보이는 장소는 松岳山 해안의 굴인데, 지금은 앞부분이 파도에 의한 침식으로 많이 짧아졌다. 작년에 올레 코스가 개발되면서 윗부분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해 문제가 되었는데, 송악산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삼매봉은 서귀포시 서홍동에 위치하며 해안에 현재 9개가 남아있다. 외돌개 내려가는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 팻말에 「황우지 12동굴」이라는 제목으로 카이텐을 숨긴 곳이라고 잘못 설명해 놓았다. 지금은 해안에서 밀려들어온 자갈들이 입구부터 1/3 가량 쌓여있다.

성산포와 서우봉, 그리고 수월봉 해안특공기지는 일반인이 발견하기 쉽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수월봉이 가장 많이 파손된 상태이다.

3. 일본군의 해안특공기지 조성공사

5군데의 해안특공기지 조성 공사는 모두 일본 해군 시설부가 담당하고 있었다.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8월 15일을 기준으로 제주도에는 약 7만 8천 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었

다. 당시 제주도에에는 일본 육군 58군 사령부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밑에 제111사단, 제121사단, 제96사단, 제108여단, 그리고 포병대 등 각종 특수부대가 배치되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병력이 제주도에 집중된 것은 일본군 사령부, 즉大本營(大本營)이 본토결전(本土決戰)에 대비해서 수립한 작전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이 병력들은 거의 다 1945년 3월 이후에 제주도에 들어왔다. 그 이전에는 제주도에에는 대부분 해군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해군이 제주도 작전의 주체였다. 특히 대정읍의 알뜨르 비행장 공사는 1930년대 特攻艇秘匿壕의 건설은 해군이 주도했으며, 震洋部隊의 배치가 4월에 이루어졌다.

당시 주둔했던 일본군 병사와 공사에 동원되었던 조선인 노동자를 만나서 직접 면접조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조사를 한 결과 지금까지 일본군 병사는 만날 수 없었지만, 10명 이상의 조선인 노동자를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내용을 재구성한다.

1944년 후반 들면서 제주도에 해군특공대를 배치하기로 계획이 세워지고,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것은 1944년말이라고 생각된다. 5곳 모두 계획서에 나와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공사가 시작된 곳은 성산 일출봉이었다.

증언을 종합하면, 해안특공시설 건설계획을 수립한 것은 海軍 시설부 203부대이고, 공사의 지휘감독은 시설부 소속 군인들이 직접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일본의 건설 및 토목회사들이 담당했다. 다이내마이트 사용할 줄 아는 기술자는 전라남도 탄광에서 모집해 왔고, 하급 노동자는 행정기관을 통해 각 마을 주민들을 동원했다. 일본군 병사들이 직접 동원되어 굴착했던 다른 지역의 지하호와 각종 토치카들과는 달리 일본군 병사들은 동원되지 않았다.

결혼은 1943년에 했고, 그리고 나 제주 간 건 1945년 정월달에 갔어요. 그때는 전시시대가 되가지고, 왜놈들이 광산 종업원들을 전부 노동자로 데코 갔어요. 그래서 우리 광양 광산에서 800명이 동원이 됐는데, 1차, 2차, 3차로 갔는데 나가 인자 1차로 갔어요. 근디 그때는 여수서 군함으로 갔는데. ... 여기서 제주 가는디 4일이 걸렸어요.

... 성산포는 뺑 돌리가 바단디 전부 옆이 절벽이거든. 거디가 뺑뺑 돌려 구녕비 돌는거라. 터널비. 광산 사람들이 구녕비 뺑 뚫븐게 전부 광산이라. 지금은 이북이지만은 북한 광산 사람도 다 소집했거든. 그래갖고 서귀포로 가고 저 끝에 모슬포로 가고 그러니깐.

그래서 우리는 작업한 건 뭐고 하니 이 산, 물하고, 산하고 딱 지경에 딱 맞춰갖고, 물이 만조가 되면 딱 그 근처까지 닿게 되면 그 발로 구덩을 파고 들어갔어. 거기다가 뭐라고 하나면 요새 리어카 같은디, 요만한 바퀴가 두 개가 붙었어요. 그 리어 그 놈을 구덩에 전부 숨겨 놓는 거라. 뺑뺑 돌른은 왜 말로 교라이뺑(魚雷艇)이라고 하는디. ...그 굴이 한 굴이 아마 한 7m 그 정도 깊이 안 들어갔어요. 그 걸 인자 교라이뺑(魚雷艇) 밑에 리어카를 딱 수평해서, 물이 들면 딱 수평이거든. 근디 거그서 한 10m는 비삭허니 물 3m 깊이 정도까지는 공구리를 한다고. 그래갖고 좀 왔다 그러면 쪽 밀어버리면 빠져 부러. 어디 가면 물이 이시니께 ... 우리가 맡은 굴이 17켤가 돼. (장한중)

한편 서귀포 삼매봉 앞 해안특공기지는 성산일출봉 기지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던 듯하다. 삼매봉으로 동원된 오경성(1930년생. 서귀포시 거주)이 진술한 당시 작업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45년 3월경에 갔는데 작업을 막 시작하고 있었다. 해안동굴 작업은 군인들과 경북 출신 노무자들이 했고 제주도 노무자들은 동굴 앞 축항공사를 주로 했으며 돌, 시멘트 등을 운반하는 작업도 했다. 밀물이면 작업을 하지 못하고 썰물 때만 작업했는데, 동굴에는 특공정, 보트에 바퀴달린 배를 놓아두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암반이라 공사의 진척이 느려

다 완성하지 못하고 해방되었다. 동굴 양쪽에 큰 갯목을 세우고, 바닥은 마루를 깔고, 3층으로 천장을 고정시켰다. ㄷ자로 휘어진 쇠목으로 갯목을 서로 고정시키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작업했던 곳은 지금 보는 삼매봉 앞 기지가 아니라 그 보다 동쪽의 천지연 폭포에서 나오는 해안 입구지역이었다. 다나카부대 본부중대가 도착해서 공사중이던 해안 입구지역의 공사를 중단하고, 현재의 위치로 변경했다.

4. 제주에 주둔한 진양대와 그 병사들

제주도에 주둔했던 진양부대는 鎭海警備府 所屬 第45・119・120震洋隊였다. 세 부대를 태운 배는 성산환(城山丸)이라는 수송선이었다. 이 배로 4월 6일 일본 사세보(佐世保) 항구를 떠나 4월 8일 제주도 성산포에 도착했다. 그 중에 第45震洋隊는 성산 일출봉에, 第119震洋隊는 西歸浦에, 第120震洋隊가 서남부 지역 翰京面 水月峰 海岸에 배치된다. 각각 부대 대장의 이름을 따서 무라야마(村山)부대, 다나카(田中)부대, 오노(小野)부대라고 불렀다. “濟州島 海軍部隊의 司務으로서 海軍報道部로부터 하마다 浜田少佐 着任.”이라고 기록한 것을 볼 때, 세 지역 중에서 본부는 성산이라고 생각된다.

무라야마 부대가 도착한 성산포에는 숙식을 할 수 있는 막사도 준비되지 않았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교는 민가를 빌려서 숙식을 했고, 병사들은 시설부가 급조한 띠로 만든 병사(兵舍) 5,6동에 나누어 잠을 잤다.

문제는 또 있었다. 아직 해안에 굴 파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였다. 배(艇)를 格納하는 洞窟은 上陸 후에도 해군시설부가 광산 노무자 2~3백명을 동원해서 주야로 작업을 해서 결국 4월말에는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배를 격납하려 했지만, 습기 때문에 전기 계통에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문제가 많아 결국은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 불능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부대가 갖고 온 震洋 1型 50척을 2艇隊, 4艇隊는 별도의 장소로 옮겨 가고, 그밖에는 일출봉 옆의 해안 모래밭에 뒤집어 놓고 그 위에 각종 위장을 하고 지낼 수밖에 없었다. 마틴 쌍발기(マーチン 双發機) 2대가 총격과 폭격을 가한 적이 있었지만,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무라야마부대가 도착할 당시 성산포에는 해군 시설대 뿐만 아니라 이미 육군부대들도 주둔해 있었다. 당시 상황을 현지에 거주하던 오시중(吳是鍾, 1923년생, 88세)의 증언을 통해 보자.

해군들은 무라야마 부대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몇 사람이 안 왔어요. ... 나중에 굴을, 시설을 하는 과정에다가 보트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 요카랭들이 오기 시작하대요. 그니까 지금 그 요카랭들도 병사를 짓지 못해가지고 소나무 잘라다가 임시 막사를 만들어가지고 지냈거든요...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주차장하는데, 절간들 들어서 가지고 주차장 이쪽에다가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바로 그 장소에 요카랭들이 주둔합니다. 이제 주차장 자리를 그 육군들이 일출봉에다가 전파탐지기 부대가 있었고 만군, 그 만주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부락에다 상주되어 있었고. ... 여기에도 한 3개 부대 정도가 따로따로 주둔되어 있었죠.

라고 하였다. 당시 이 지역에 들어온 육군 부대는 제108여단 산하 부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대는 재소집병들로 구성된 일종의 예비군 부대로 나이도 40대가 주축이었고, 1945년초에 급조된 부대였기 때문에, 소총 이외에는 별다른 무기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이 육

군 병력은 이를테면 물을 길는다든지 하는 온갖 잡일을 도맡아 놓고 하고, 보조를 서고, 배를 지키고, 40대가 훈련을 할 때는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비를 서고 있었다. 반면 해군 시설부는 굴 파는 작업에 전념하고 있었고, 새로 도착한 , 40대가 훈훈련에만 전념하였다. 40대가 병사들은 모두 예과련(予科練) 출신으로 서세 전후의 젊은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위아래가 붙은 훈련복을 착용하고 매 농조이외짐서 배에 올라 바다에 나가서 훈련을 받았다고 했다. 배를 굴속에서 꺼내서 바다로 이동시키고, 그것을 탑승조가 타고 나가서 가상 적군함에 돌진하는 연습을 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당시 성산포 병영에는 2개소의 慰安所가 있었다는 점이다. 위안소를 이용하는 것은 장교들과 진양대 병사들인 예과련생들이었다고 한다. 오시중은 그들을 "7개의 단추"로 기억하고 있었다. 予科練生의 制服에는 앞부분에 7個의 단추가 달려 있었고, 이것이 그들의 일종의 상징이었다. 평소에는 진양보트를 타고 훈련하면서 미군 상륙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병사들이 주말 등 휴일이 되면 제복을 갖추어 입고, 나들이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 때 유일하게 줄을 선 곳이 바로 위안소였다고 한다. 위안소 앞에서 나란히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고 한다.

보트 있어난 자리에 없어가지고 굴속으로 이동을 했다 하면은 그 때는 요카랭들이 훈련한 시간이 예요. (보트를 굴속에) 전부는 못 집어넣었어요. 몇 대만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서다가 운반하는 구미(組)가 있고 타 가지고 나가는 구미가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파도에다가 다 휩쓸려버렸지만은 그 빌레 물 싸면 남는 데는 길 닦아가지고 세멘으로 해 가지고 리어카에 실어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들어왔다 해가지고... 저 십지코지까지 몇 바퀴 돌아가지고 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 때는 보지 못허도록 했지만은 우리는 뭐 경비들허고 친하니까 쪼그러 앉아가지고 그거 구경한다고... 게니까 갔다왔다 갔다왔다 이렇게 하면서 훈련들을 하는 모양이에요.

요카랭들은 그다지 인원이 많질 않고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위안소들 출려 가지고 다들 정장들 입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시리 허는 거 보게 되면 한 몇 사람은 안 된 것 같고, 그 물이 없어노니까 우물물을 길어나르는 것은 일반병사들이 막 길어날랐거든요. ... 요카랭은 단지 훈련만 받고 허지 잡일은 하질 안해. 그 저 보트를 맨들 적에도 요카랭들이 손을 안대요. ... 하여튼 훈련할 때만 자기네들이 앉아가지고 허는 모양이에요. 그 부대가 따로 있어요. 그니까 그 부대가 야마무라 부다이허고 같은 부대지는 모르겠지만...

108여단 육군 병사들과 비교해 볼 때, 특공대의 진양정 탑승원들은 특별한 대접을 받는 존재였다. 그들에게는 일체의 잡일이 주어지지 않았다. 잡일은 모두 육군 병사들 몫이었다. 해안의 굴을 파는 작업도 모두 시설부와 조선인 노동자들 몫이었다.

그들 예과련 출신 병사들은 미군이 나타났을 때 몸을 던져 죽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오로지 그 일에만 전념하도록 대접해주는 것이었고, 따라서 평소에 그들은 매일 훈련이 가장 중요한 일과였다. 그런 그들에게 휴일에 위안소에 가도록 허용하는 것 역시 커다란 특권이었을 것이다.

성산읍에 차려진 위안소는 2군데였다. 하나는 일본인이 운영하던 여관을 이용했고, 다른 한 곳은 일반 민가를 개조해서 사용했다. 양쪽 모두 6~7명 정도씩 있었다고 한다. 여관이 있던 자리는 기억자 형태로 집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절반만 남아 있다.

다른 한 곳은 모두 철거해 주차장이 되어 버렸다.

그곳에 있던 여성들은 모두 젊은 조선여성들이었다고 한다. 그들이 어디서 끌려왔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오시종의 집이 이곳에서 10m도 채 되지 않는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자주 지켜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해방 직후에 제주시, 당시의 제주읍에 나갔다가 그 중 한 명이 거리를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서귀포에 주둔한 다나카 부대와 고산지역의 오노부대 사람들이 위안소를 이용했는지에 관해서는 좀더 조사가 필요하다.

다만 고산지역에 주둔했던 오노부대의 무라카미(村上次男)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島内 他部隊(제45, 제119)의 基地와 주변의 民家 狀況을 비교하면, 매우 劣惡했기 때문에, 搭乘員을 비롯한 部隊員의 餘暇時間을 즐길만한 장소가 없어서 불쌍하기도 했었다. 반면, 隊員들 사이에 이러저런 면에서의 관계가 대단히 돈독해졌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전후에도 지금까지 다른 部隊에서는 보이지 않는 의기투합이 계속 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는데,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고산지역에는 아무런 위락 시설도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수시로 성산지역까지 다녀갈 수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일단은 본부가 있었던 성산 지역에만 위안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5. 맺음말

성산포 일출봉 해안에 파놓은 특공정 기지에서 훈련을 하던 병사들, 말하자면 예과련생들은 대부분 20세가 넘지 않았거나 갓 넘은 젊은이들이었다. 예과련은 원래 14~17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소집해서 비행사 훈련을 시켰다. 물론 전쟁 초기에는 비행사가 부족해서 조종사를 양성하는 훈련을 시켰다. 그러나 나중에는 비행기가 거의 다 떨어지고, 미군에게 제공권을 완전히 빼앗긴 다음에는 훈련받은 예과련생들이 남아 있는 비행기를 몰고 적함에 돌진할 부대원들을 빼고는 갈 곳이 없었다.

1944년부터 해군은 마지막 수단으로 각종 특공병기(特攻兵器)를 제작했다. 특공병기는 카이텐(回天)이라고 부르는 어뢰정과 신요(震洋)라고 부르는 자살 보트가 주종을 이룬다. 이 자살병기를 조종하고 적 함대에 부딪쳐 죽어갈 대상으로 해군은 예과련생들을 재훈련 시켰다.

그 중 제주도에 배치된 부대는 진양대(震洋隊)였다. 진양대는 모두 第147震洋隊까지 있었는데, 각 부대가 180명에서 200명 사이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모두 2만에서 3만 사이의 병사들로 구성되었다. 이 부대들은 일본 전역에, 그리고 대만과 오키나와에 배치되었고, 제주도에 3개 부대가 배치된 것이다.

8월 15일 전쟁이 끝나자, 이들은 배에 놓여 있던 폭약은 바다 속으로 던져 버렸고, 배는 모두 육상 한 곳으로 모아 儀式을 가진 다음 소각했다. 그리고는 서둘러 일본으로 돌아갔다. 고산에 주둔하던 오노부대는 지역 주민들의 漁船과 계약하여 9월 들어서서 3회에 나누어 대부분 귀국하였고, 성산포의 무라야마 부대와 서귀포의 다나카부대는 서귀포에 집결해서 배를 타고 진해로 이동하였고, 진해에서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서귀포 다나카부대의 정비대장(整備隊長) 이토(伊藤喜作) 특무중위(特務中尉)는 자결하였다. 종적 직후 제주도에서 자결한 것은 해군은 이토 중위가 유일하지만, 육군 장교들 중에는 여러 명이 있었다.

이들 중에 일부는 제주도를 다시 방문하기도 했다. 특히 震洋會가 1990년에 간행한 『寫眞集 人間兵器 震洋特別攻撃隊』에는 3부대의 부대원들이 방문해서 과거 자신들이 주둔했던 장소의 사진을 찍고, 관련된 기록을 작성해 놓고 있다. 1987년 고산지역을 다시 방문한 대원 19명이 기념사진을 남겨 놓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3년 쯤 전에 다나카부대 소속 병사가 서귀포를 다시 방문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들 중에 이제 살아남아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쟁이 끝나고 무사히 살아 돌아갔던 진양대 병사들은 제주도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을까? 그들에게 제주도민들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었을까? 또 위안소에서 만났던 조선 여성을 오래 동안 기억하고 있었을까? 젊은 시절 목숨을 내걸고 특공대원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주둔해 있던 제주도에서 느꼈던 감정은 무엇일까? 천황이나 일본군 장군들이 아닌, 일반 병사들이 제주도에 와서 맞이했던 전쟁과 그 경험을 오늘날 우리 제주도민들이 상상해 보는 것은 과연 전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은 어떻게 만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새삼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